



 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www.emerics.org/ 2019. 04. 03. 아프리카·중동	「동향세미나」 카타르 금융센터, '전략비전 2022' 발표 작성 손성현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	---

□ 카타르 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er, 이하 QFC)는 2019년 2월 17일 서비스 산업 육성, 역외 국가들과의 이슬람 금융 산업 관련 협력 확대,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략비전 2022’를 발표하였음.

- QFC는 전략비전을 통해 디지털(전자 보건의료,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유치), 미디어(정부의 언론 통제 없는 미디어 시티 조성), 핀테크(금융 기술 관련 스타트업 지원, 파이낸스 시티 조성), 스포츠(월드컵을 비롯한 국제 행사 개최, 스포츠 비즈니스 구역 설립) 등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¹⁾
 - o QFC는 카타르의 유일한 금융 특구로, 2018년 기준 6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00% 외국인 지분 소유, 과실송금 100%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QFC는 입주 세제 혜택, 저리 융자 제공, 무료 사무실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임.
- 역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이슬람 금융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터키, 말레이시아 등과 통합된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하였음.
- 전략비전 안에 쿠웨이트, 오만, 터키, 파키스탄, 인도 등과의 투자 및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신흥벨트 이니셔티브(NEBI: New Emerging Belt Initiative)도 포함되었음.

□ QFC의 전략비전 발표는 카타르 정부의 금융 서비스 부문 경쟁력 확보 및 경제다각화, 탈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QFC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등과 역내 금융 중심지가 되고자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비교우위를 찾고자 함.
 - o 카타르를 비롯한 GCC 국가들 대부분은 천연자원 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한 일자리 부족,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경기 불안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산업을 비롯한 경제 다각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하지만 FDI 유입 규모가 크지 않고 인구도 200만에 불과한 카타르가 금융 산업만으로 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QFC를 주축으로 하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슬람 금융 중심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자 함.
- 카타르는 자국이 포함된 안보 및 경제 공동체인 GCC 주요 국가들과 2017년 6월 이후 단교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 국가들과 투자 및 교역이 중단되면서 QFC를 통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1) 2018년 기준 카타르의 국제금융센터 지수는 세계 34위, 중동 내 4위임.

- o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등은 카타르의 해킹된 가짜뉴스를 빌미로 시아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는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함.²⁾

□ QFC의 전략비전을 통해 카타르는 GCC 이외의 국가들과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카타르는 QFC의 전략비전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UAE 중심의 중동 정치 및 경제 질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향후 GCC보다는 역외의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사업환경, 비석유 부문(산업) 발전 상황, 시장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QFC가 금융, 미디어, 스포츠 등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 막대한 투자와 인적개발 및 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국제 협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에너지 수입과 인프라·건설, 선박 건조에 집중된 한-카타르 협력관계를 다각화하기 위해 투자진출, 기술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아젠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MERiCs**

참고자료

Qatar Financial Centre Authority, Gulfnews.com, Bloomberg 등 참고

2) 2017년 5월 23일 카타르 관영통신사인 QNA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을 이슬람 패권 국가(Islamic Power)라 칭하고, 이슬람주의 무장정파인 하마스(Hamas)와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을 두둔하는 카타르 국왕의 성명을 보도하였음. 카타르 정부는 QNA 송고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국왕 명의의 ‘가짜 성명’이 배포되었다고 해명하였으나, 아랍 국가들은 카타르 측 해명을 인정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였음.